2018판

국어영역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방법은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8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 / 고전시가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2017학년도 기출수능문제 유형인 갈래 복합과 시대 복합 문제 수록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시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 성 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 용 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 함양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현대시/고전시가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머 리 말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4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4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 ·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대시/고전시가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시마다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를 두어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두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차 례

제1부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2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반어, 역설·모순 형용,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26
   - 유형모의1-1 길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50
     - 시 해석력 높이기•54
   - 유형모의1-2 꽃을 위한 서시 / 폭포 55
     - 시 해석력 높이기•60
   - 유형모의1-3 승무 / 국화 옆에서 61
     - 시 해석력 높이기•65
   - 유형모의1-4 어부가 66
     - 시 해석력 높이기•69
   - 유형모의1-5 우부가 70
     - 시 해석력 높이기•73
   - 유형모의1-6 사리화 /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 냇가의 해오랍아 74
     - 시 해석력 높이기•77
   - 유형모의1-7 못 잊어 / 오늘도 고향은 / 농무 / 뒤들에 동난지이 / 눈 / 벽모의 묘 78
     - 시 해석력 높이기•84
2. 상징 86
   - 유형모의2-1 아버지의 마음 / 가정(家庭) 99
     - 시 해석력 높이기•104
   - 유형모의2-2 까치밥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05
     - 시 해석력 높이기•109
   - 유형모의2-3 누룩 / 연탄 한 장 110
     - 시 해석력 높이기•115
   - 유형모의2-4 규원가(閨怨歌) 116
     - 시 해석력 높이기•119
   - 유형모의2-5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처용가 120
     - 시 해석력 높이기•123
   - 유형모의2-6 찬기파랑가 / 목마와 숙녀 / 간 124
     - 시 해석력 높이기•128
3. 심상 129
   - 유형모의3-1 길 /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135
     - 시 해석력 높이기•139
   - 유형모의3-2 강(江) 2 / 벼 140
     - 시 해석력 높이기•144
   - 유형모의3-3 만가(輓歌) -애(哀)소리 145
     - 시 해석력 높이기•149
   - 유형모의3-4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곡자(哭子) 150
     - 시 해석력 높이기•154
   - 유형모의3-5 십자가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전원(田園)에 남은 흥(興)을 155
     - 시 해석력 높이기•159

4. 시어의 의미 · 기능과 생략된 시구 ····· 160
유형모의4-1 참깨를 털면서 / 도다리를 먹으며 177
시 해석력 높이기•181
유형모의4-2 목숨 /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房) 5 182
시 해석력 높이기•187
유형모의4-3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188
시 해석력 높이기•191
유형모의4-4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연행가(燕行歌) 192
시 해석력 높이기•196
유형모의4-5 깃발 / 종소리 / 면앙정가 197
시 해석력 높이기•200

5. 운율 ····· 201
유형모의5-1 타는 목마름으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06
시 해석력 높이기•210
유형모의5-2 청산도 / 꽃덤불 211
시 해석력 높이기•215
유형모의5-3 농가월령가 216
시 해석력 높이기•220
유형모의5-4 보리타작 / 모내기노래 221
시 해석력 높이기•224
유형모의5-5 모란이 피기까지는 / 왕십리 / 남으로 창을 내겠소 / 청산별곡 225
시 해석력 높이기•229

6. 형상화 ····· 230
유형모의6-1 맹인 가수 부부 / 사평역에서 236
시 해석력 높이기•240
유형모의6-2 떠나가는 배 / 봉황수 241
시 해석력 높이기•245
유형모의6-3 용부가 246
시 해석력 높이기•250
유형모의6-4 안민가(安民歌) / 굼벙이 매암이 되어 251
시 해석력 높이기•254
유형모의6-5 바다와 나비 / 나비와 광장 / 등고(登高) 255
시 해석력 높이기•259

7.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 의도 ····· 260
유형모의7-1 나의 가난은 / 설날 아침에 289
시 해석력 높이기•293
유형모의7-2 눈물 / 은수저 294
시 해석력 높이기•297
유형모의7-3 누항사 298
시 해석력 높이기•302
유형모의7-4 유산가 304
시 해석력 높이기•307
유형모의7-5 찬기파랑가 / 사모곡 308
시 해석력 높이기•312
유형모의7-6 사슴 / 오랑캐꽃 / 또 다른 고향 / 사령(死靈) 313
시 해석력 높이기•317

차 례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 319

유형모의8-1 개똥동과 장미 / 그 여름의 끝 342
시 해석력 높이기•346
유형모의8-2 타는 목마름으로 / 껍데기는 가라 347
시 해석력 높이기•351
유형모의8-3 봉선화가 352
시 해석력 높이기•356
유형모의8-4 정과정(鄭瓜亭) / 개야미 불개야미 357
시 해석력 높이기•361
유형모의8-5 광야 / 울릉도 / 성북동 비둘기 / 하우요(夏雨謠) 362
시 해석력 높이기•367

9. 표현상의 특징 ····· 369

유형모의9-1 휴전선(休戰線)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403
시 해석력 높이기•407
유형모의9-2 눈 / 가을의 기도 408
시 해석력 높이기•411
유형모의9-3 속미인곡 412
시 해석력 높이기•416
유형모의9-4 창 내고쟈 / 어이 못 오던가 / 나모도 바히돌도 417
시 해석력 높이기•421
유형모의9-5 혼몽 / 산촌에 밤이 드니 422
시 해석력 높이기•425
유형모의9-6 나의 침실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427
시 해석력 높이기•430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종합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머슴 대길이 / 섬진강1, 고공가 432
종합실전모의 제2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귀천, 제비가 440
종합실전모의 제3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바다와 나비 / 겨울 바다, 영립(詠笠) / 어부가(漁夫歌) 448
종합실전모의 제4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 청포도, 면앙정가 457
종합실전모의 제5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렌지 / 연시(軟柿), 빈녀음 / 시집살이 노래 465
종합실전모의 제6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작은 짐승 / 성탄제, 견회요 / 개야미 불개야미 474
종합실전모의 제7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풍장1, 사미인곡 482

제4부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고향(시) / 고향(소설) 492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자작나무숲으로 가서(시) / 가을의 나상(수필) 501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여우난 곬족(시) / 산촌 여정(수필) 509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상행 / 하급반 교과서 / 아리랑 타령(현대 / 근대시) 517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월 / 춘설 / 성산별곡(현대시 / 고전시가)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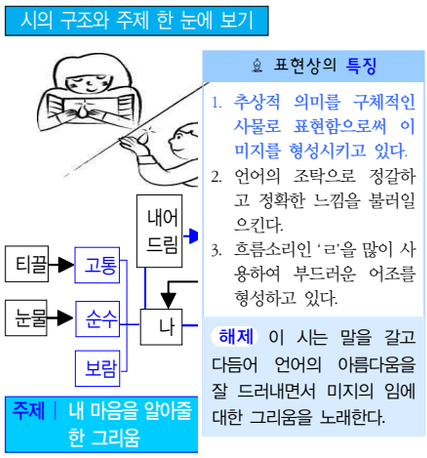
제5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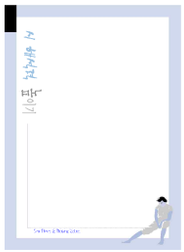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쑤우우우우우욱 올라갑니다.

가. 모든 시의 해설





1.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시의 구조와 주제를 그림과 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표현상의 특징

각 시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수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 밝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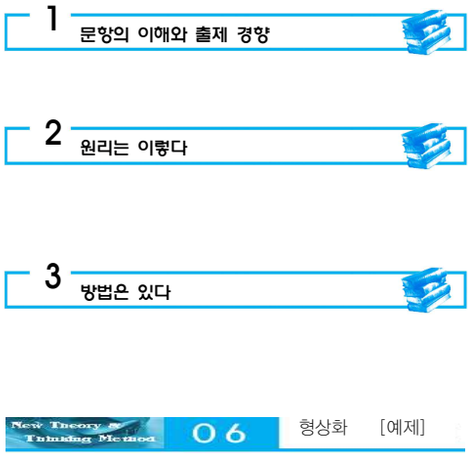
3. 시 해석력 높이기

시구 자체를 이용하여 내재적으로 시를 풀이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제1부 201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 최근 연도의 수능 문제를 싣고 해설하였으며 그 유형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꼭 해설까지 잘 읽어 봅시다.

다. 제2부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기출 수능 문항에서 역추론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 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로 풀이하였습니다.

5-2 운 율 [유형모의]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 · 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라.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현대시, 고전시가의 신경향 · 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하여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제4부 갈래 복합 / 시대 복합 실전모의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여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제4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제를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풀이하여 방법은있다를 외우지 않아도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명별 찾아보기

가나다순

현대시

ㄱ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338p
가을의 기도, 김현승 380, 408p
가정, 박목월 100p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97p
간, 윤동주 126p
강 2, 박두진 140p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342p
겨울 바다, 김남조 448p
고고, 김종길 396p
고사, 조지훈 371p
고풍, 신석초 369p
고향, 정지용 492p
고향 앞에서, 오장환 326p
광야, 이육사 362p
교목, 이육사 261p
구두 한 켤레의 시, 곽재구 334p
구두, 송찬호 323p
구름의 파수병, 김수영 12p
구성동, 정지용 262p
국화 옆에서, 서정주 61, 87p
귀뚜라미, 이원섭 378p
귀천, 천상병 440p
귀촉도, 서정주 97p
그 나무, 김명인 41p
그 여름의 끝, 이성복 342p
그의 반, 정지용 376p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사람, 신동엽 287p
길, 김기림 135p
길, 김소월 50p
깃발, 유치환 197p
까치밥, 이성부 105p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265, 348p
꽃, 이육사 175p
꽃덤불, 신석정 211p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55, 467p

ㄴ

나그네, 박목월 97p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93p
나뭇잎 하나, 김광규 393p
나비와 광장, 김규동 255p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 5, 정한모 183p
나의 가난은, 천상병 289p
나의 침실로, 이상화 426p
낙타, 이한직 476p
낙화, 이영도 373p
낙화, 이형기 388p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김종한 457p
낡은 집, 이용악 280p
낡은 집, 최두석 328p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156p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226, 231p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93p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91p
농무, 신경림 79p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105p
누룩, 이성부 110p
눈, 김수영 81, 408p
눈물, 김현승 294p
님의 침묵, 한용운 393p

ㄷ

당신의 무덤가에, 도종환 370p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178p
들길에 서서, 신석정 242, 395p
떠나가는 배, 박용철 241p
또 다른 고향, 윤동주 315p

ㅁ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시영 394p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240p
머슴 대길이, 고은 436p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229p
모촌, 오장환 381p
목계 장터, 신경림 383p
목련이 봄비에게, 장성수 376p
목마와 숙녀, 박인환 129p
목숨, 신동집 186p
못 잊어, 김소월 82p

ㅂ

바다와 나비, 김기림 255, 448p
바위, 유치환 264p
벼, 이성부 140p
벽공, 이희승 375p
벽모의 묘, 황석우 82p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202p
봄은, 신동엽 142, 262p
봉황수, 조지훈 241p
불국사, 박목월 371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427p
뻔디기, 서정주 28p

ㅅ

사랑, 김수영 381p
사령, 김수영 278, 316p
사슴, 노천명 313, 423p
사평 역에서, 곽재구 236, 386p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391p
산, 김광섭 233p
산 · 9, 김광림 468p
산도화 I , 박목월 129, 267p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319p
살구꽃, 김억 203p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389p
상행, 김광규 523p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49p
서시, 윤동주 96, 268p
석문, 조지훈 287p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41p
설날 아침에, 김종길 289p
섬진강1, 김용택 433p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363p
성에꽃, 최두석 322p
성탄제, 김종길 475p
승무, 조지훈 61, 171p
시다의 꿈, 박노해 321p
십자가, 윤동주 89, 155p

ㅇ

아니오, 신동엽 380p
아리랑 타령, 작가 미상 518p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99p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166p
엄마 걱정, 기형도 390p
여승, 백석 377p
여우난 곬족, 백석 509p
연시, 박용래 466p
연탄 한 장, 안도현 110, 320p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78p
오랑캐꽃, 이용악 314p
오렌지, 신동집 57, 465p
오월, 김영랑 377, 525p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135p
와사등, 김광균 278p

가나다순

작품명별 찾아보기

왕십리, 김소월 225p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서정주 91p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94p
울릉도, 유치환 362p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482p
유리창1, 정지용 47p
윤사월, 박목월 231p
은수저, 김광균 293p
이별가, 박목월 340p
인동차, 정지용 397p

ㅈ

자수, 허영자 470p
자야곡, 이육사 133p
자작나무숲으로 가서, 고은 501p
자화상, 윤동주 336p
작은 짐승, 신석정 474p
절정, 이육사 375p
정념의 기, 김남조 374p
조국, 정완영 373p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397p
조찬, 정지용 384p
종달새, 박남수 373p
종소리, 박남수 197p
즐거운 편지, 황동규 45, 341p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43, 322p
진달래꽃, 김소월 204p

ㅊ

찬송, 한용운 286p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177p
청노루, 박목월 382p
청산도, 박두진 211, 398p
청포도, 이육사 457p
추억에서, 박재삼 399p
춘설, 정지용 525p
춘향 유문— 춘향의 말3, 서정주 349p

ㅌ~ㅍ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206, 347p
통박, 박노해 269p
파초우, 조지훈 386p
폭포, 김수영 389p
폭포, 이형기 55p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271p
풍장, 이한직 484p
풍장1, 황동규 482p

ㅎ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518p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207, 403p
해바라기의 비명 - 청년 화가 L을위하여, 함형수 440p
향수, 정지용 378p
황혼, 이육사 324p
휴전선, 박봉우 261, 403p

A~Z

The Last Train, 오장환 163p

고전 시가

ㄱ~ㅎ

가시리, 작가 미상 266p
강설, 유종원 401p
강촌, 두보 234p
강호사시가, 맹사성 326p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가 미상 374p
개야미 불개야미, 작가 미상 357, 477p
견회요, 윤선도 477p
고공가, 허전 435p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39p
고산구곡가, 이이 401p
곡자, 허난설헌 150p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처 89, 120p
관동별곡, 정철 168p
구룸이 무심탄 말이, 이존오 74p
굼벙이 매암이 되어, 작가 미상 251p
규원가, 허난설헌 116p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작가 미상 417p
냇가의 해오랍아, 신흠 74p
농가월령가, 정학유 216p
누항사, 박인로 298p
뒤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가 미상 80p
도산십이곡, 이황 35, 381p
독자왕유희유오영, 권섭 332p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460p
등고, 두보 256p
만가 -애소리, 작가 미상 145p
만분가, 조위 173, 198p
면앙정가, 송순 44, 284, 459p
모내기노래, 작가 미상 221p
모죽지랑가, 득오 150p
보리타작, 정약용 221p
봉선화가, 작가 미상 352p
북찬가, 이광명 173p
북창이 맑다커늘, 임제 37p
빈녀음, 허난설헌 469p
사리화, 이제현 74p
사모곡, 작가 미상 308p
사미인곡, 정철 48, 485p
산촌에 밤이 드니, 천금 422p
상사곡, 박인로 273p
상춘곡, 정극인 276p
성산별곡, 정철 275, 526p
속미인곡, 정철 283, 412p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248, 469p
안민가, 충담사 251p
야청도의성, 양태사 192p
어부가, 이현보 66, 451p
어와 동량재(棟梁材)ᄅᆞᆯ, 정철 39p
어이 못 오던가, 작가 미상 417p
연행가, 홍순학 25, 192p
영립, 김병연 451p
옛날 석가모니불이, 일연 49p
용부가, 작가 미상 246p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326p
우부가, 작가 미상 70p
유산가, 작가 미상 304, 402p
율리유곡, 김광욱 277p
이런들 엇더ᄒᆞ며, 이방원 263p
일동장유가, 김인겸 188p
전원에 남은 흥을, 김천택 157p
정과정, 정서 357, 478p
제망매가, 월명사 339p
제비가, 작가 미상 443p
찬기파랑가, 충담사 124, 308p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작가 미상 417p
처용가, 처용 120p
천만리 머나먼 길히, 왕방연 170p
청산별곡, 작가 미상 176, 227p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170p
춘면곡, 작자 미상 394p
하우요, 윤선도 365p
한거십팔곡, 권호문 279p
한숨아 세한숨아, 작가 미상 266p
혼몽, 이옥봉 422p
흥망이 유수ᄒᆞ니, 원천석 330p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2017 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현대시 · 고전 시가 해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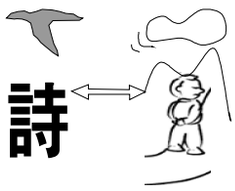
1.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주관적인 글이므로 서정적 자아가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왜 그렇듯이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 지엽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심 제재에 대하여 '어떠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가를 파악해 본다.
4.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본다.
5. 표현상의 특징(운율, 표현 기법, 어조, 화자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가 알아본다.
6. 시의 구조(선경후정, 수미상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기승전결, 기서결, 연상적 구성, 열거식, 인과적 구성 등)가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7. 사용된 시어의 특징과 관습적· 원형적 상징 의미를 알아본 후 이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알맞은가 생각해 본다.

※ 2017학년도 수능 문제와 해설

작품명과 작가

㉮구름의 파수병, 김수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시 (추구 대상) ◀▶ 나 = 잠자는 구름 (현실적 자아)

주제 | 시를 추구하지 못하고 현실 생활에 얽매인 자아에 대한 성찰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시켜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가정법을 구사해 화자의 현실적 심적 상황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를 쓰지 못하고 현실에 얽매인 자아를 먼지 낀 잡초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동일시하여 표현하면서 이에 따른 자아 성찰을 진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숭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숭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숭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숭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숭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희곡/시나리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느낌, 극락 같은, 이강백

주제 :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과 가치 판단의 순간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문제

해제 : 이 희곡은 이 작품은 불상제작이라는 작업을 두고 두 개의 가치관의 유형을 제시하며 인간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보편적 진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툰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B]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조숭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숭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숭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라는 구절을 보면 화자의 친구가 방문한다는 것은 가정일 뿐 현실이 아니다. 또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구절에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와의 가정된 이야기 이전에 이미 표현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의 '물건들' 까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이라는 구절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이다. ④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라는 구절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이다. ⑤ '시를 반역한 죄로 /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라는 구절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이다.

✔ 해답 ②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구의 의미나 시구에 드러난 태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라는 구절과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이미 정해진 물체' 가 지시하는 것은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 로 현실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제시된 구절은 ㉠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비루기 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라는 구절에서 자기 성찰의 태도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머물러 있는 메마른 산정이 현실적 공간이라며 '어디' 는 현실을 떠난 시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이므로 이는 현실을 반역한 시를 지향하는 정신이다. ⑤ '먼지 낀 잡초 우에 / 잠자는 구름이여' 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현재는 잠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비를 지시하며 자기희생을 상징하는 피를 흘릴 수 있는 구름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②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구절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의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라는 구절은 화자가 관찰한 대상을 드러내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라는 구절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바루기 ②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라는 구절에서 '물이 맑고 시원해요'라는 구절은 상쾌한 내면을 나타낸다.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쑥스러움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상쾌함을 드러낸다. ④ [A]의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라는 구절은 연속성과 무관한 화자의 쑥스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B]의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라는 구절은 두 인물의 일체감을 드러낸다. ⑤ [A], [B] 둘 다에서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② ⓑ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③ ⓒ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④ ⓓ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⑤ ⓔ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지문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윗글에서 현실 상황은 서연의 장례를 치르는 순간이다.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숭인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시간적 배경은 서연이 살아있을 때로, 즉 과거로 되돌아가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다.

오답 바루기 ① ⓐ는 서연의 장례식 배경이 수직으로 없어지며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배경을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 ③ ⓒ는 함이정과 서연이 과거에 행동했던 배경을 제시한다. ④ ⓓ는 현재의 상황으로 무대 안에서 조숭인이 피아노를 통해 과거의 함이정과 서연의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구실을 한다. ⑤ ⓔ에 표현된 바와 같이 다급한 상황을 드러내 긴장감을 촉발시킨다.

✔ 해답 ②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숭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공간의 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서연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함이정의 말에 나오는 하늘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며 서연의 예술관이 함이정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오답 비투기 ① 집과 거리와 관련된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라는 구절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표출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먼 산정과 관련된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라는 구절을 보면 화자가 자신의 생활 현실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작업장과 관련된 서연의 대화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과 동연의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말로 보면 두 사람의 예술관의 차이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저쪽은 개울물 건너쪽으로 눈부시게 밝은 곳으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함묘진이 극락문이 열렸다며 서연을 쫓아 따라가는 곳이어서 극락을 의미하며 이쪽은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 해답 ④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숭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대화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는 함묘진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느나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오답 바루기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 이어진 ⓐ에 의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함묘진이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 적절하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 이어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라는 지문을 통해 과거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와 관련된 서연의 대사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를 보면 동연과 서연은 예술관의 차이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작품의 주제 의식은 서연의 대사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구절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도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실을 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③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A]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찻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벙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B]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겉밤 머루 비자(榧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려 주주리는 지저귄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여

작품명과 작가
연행가, 홍순학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필담 살(화살) → 의사소통 귀국에 바쁜 마음

주제 | 사신으로 가 보고 들은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소감과 귀국에 바쁜 마음

표현상의 특징

1. 4음보의 반복과 대구법의 활용으로 강한 율격미를 형성하고 있다.
2. 여러 가지 관찰 대상을 나열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3. 여정과 견문 및 감상의 제시로 기행문 형식을 잘 드러냄으로써 서사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가사는 기행문 형식을 활용해 여정과 견문 및 감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숭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삽삽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화자의 정서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등의 구절에서 낯선 풍물을 표현하고 있고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등의 구절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등의 구절에서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서풍이 삽삽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등의 구절에서 자연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으나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며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표현도 아니다. ②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라는 구절이 학문과 관련된 서책을 서술하고 있으나 화자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 관련된 것이며 입신양명에 대한 표현도 없다. ④ 상을 받는 행사에서 상으로 받은 물품과 사례에 대한 표현은 있으나 사람들의 외양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⑤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라는 구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하고 있으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여'라는 구절에서 아직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해답 ③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올 적에 심은 곡식'이란 구절은 봄을 나타내고 '추수가 한창이요'라는 구절은 가을을 나타내므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준다.

오답 비루기 ① ㉠ 청각적 이미지만 사용하였고 대상이 지닌 감정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다. ② ㉡과 관련해서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③ ㉢에서 음성 상징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분분하다'는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④ ㉣은 '임금에게 보고서를 보내느라 먼저 온 군관을 전송하고'라는 뜻으로 새로운 계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해답 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군.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⑤ [A]의 '귀머거리 벙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겉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구의 의미와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간담상조가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을 뜻하듯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과의 친근감을,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황상이 상을 주사', '구고두 사례한 후' 등이 구절과 관련되어 황상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다. 참고로 황상은 사신 일행보다 북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바루기 ② '우리들'은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삼 사신' 일행은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라는 구절과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볼 때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필담'은 '글씨 써서 말을 하니 /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구고두'는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라는 구절과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비위가 뒤집혀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⑤ '귀머거리 벙어린 듯'은 '물끄러미 서로 보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메밀떡에 밀다식에 겉밤' 등은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볼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나타낸다.

✔ 해답 ①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시에서는 사물을 더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는 기교나 사고 방식으로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비유 등의 문학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것을 구별하여 찾아내거나 그 효과와 거기에 담긴 의미나, 필자의 의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반어(反語, irony)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인상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 일기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무 일도 못하고 가슴 아프게 지냈다'는 의미의 반어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역설·모순 형용

①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일면 부정한 권력에 누명을 써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임의 목소리만 들리거나 임의 얼굴만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②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竝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나스탤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I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작품명과 작가
뻔디기,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풍자

(3) 풍자(諷刺, satire)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문보기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빼자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쬐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뻔디기 니야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삐억 삐어 뻔디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뻔디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서정주, 뻔디기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뻔데기니야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예문보기

넥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답니다.
살갗을 희게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트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슲은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 김기림, 시민 행렬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분을 풍자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1. 비속어를 써서 부정적 현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제 비속어를 써 가며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4) 비유법

①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 **주관적 변용(사이비 진술)**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 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문보기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 작가 미상, 민요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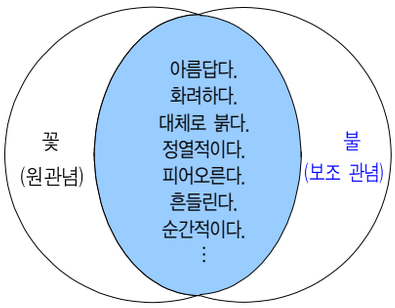
예문보기

심금(心琴)을 울린다.

심금은 원래 마음을 울리는 거문고란 뜻이지만 마음을 비유하는 사비유에 해당한다.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비유의 성립 과정>



대상을 서로 유추(類推)하거나,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를 성립시킨다.

② 기능

㉠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③ **종류** : 두 사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문보기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신경림, 농무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꺽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림이 공통점 : 해해댄다.

㉡ **은유법** : 공통점을 숨기어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보기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 서정주, 광화문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예문보기

시간의 발은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 강규형, 쓰러지는 잔

시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 :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예문보기

귀또리 져 귀또리 어여쁘다 저 귀또리
어인 귀또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예어 사창에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고시조

귀또리가 즐겁게도 울 수 있고 슬프게도 울 수 있을 것인데 위 시에서는 절절이 슬픈 소리로 혼자 운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사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문보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위 시에서 '나룻배'는 행인을 강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보기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위 시에서 '새'는 귀촉도를 가리키며 귀촉도는 자규, 망제, 두혼, 두우, 두백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넋이 두견이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객관적으로 슬프게 우는 새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예문보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

위 시에서 '기(旗)'는 때로 흔들리기고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평온을 되찾는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문보기

송장이
수백만(數百萬)
붉은 피가
삼천리. —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7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대유법은 환유법와 제유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문보기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 이유경, 아버지의 흙2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풍유법**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는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 **중의법** : 하나의 말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엣것인들 긔 뉘 따해 났다니. —성삼문, 고시조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뜻하고, '채미'에서 '미'는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5) 강조법

①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들어낸다.

예문보기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 고은, 성묘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점층법 :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문보기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뵀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 김상용, 고시조

㉤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대상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사실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 박성룡, 양귀비꽃

ⓢ **억양법** : 처음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두 사실을 명백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폐허여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 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억양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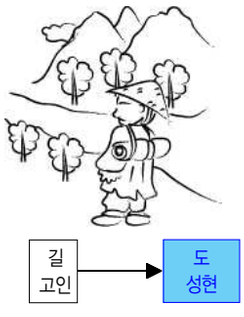
ⓞ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문보기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명과 작가
도산십이곡, 이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학문에의 정진

표현상의 특징

1.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2. 상징어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길을 상징적 의미로 활용해 학문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6) 변화법

①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켜 강한 인상을 준다.

예문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는. — 김현승, 절대 고독

㉢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문보기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야 알련만…….
— 이상화, 나의 침실로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 설의법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변화법으로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문보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7) 언어 유희(言語遊戱, pun)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치정(癡情) 같은 정치가
상식(常識)이 병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빛과 살붙이와
*현*금이 *실현*하는 *현실* 앞에서
다달은 낭떠러지! — 송욱, 하여지향

음절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재미와 함께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북창(北窓)이 맑다커늘 우장(雨裝)이 업시 길을 나니
산(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 비 맛잣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찬비는 한우(寒雨)라는 기생을 나타내는데 기생의 이름에 들어있는 한(寒)의 의미를 이용해 '얼어 잘까'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임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찬비 → 한우 → 연정 고백

주제 | 비에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 고백

표현상의 특징

1.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찬 비에서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을 흥미롭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3 방법은 있다

표현 기법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반어는 언어적으로는 아무 모순이 없으나 상황적으로 상반된 표현인가로 판단한다.
2. 모순 형용은 앞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란히 놓였는가로 판단한다.
3. 역설은 언어 자체의 모순보다도 상황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면에서 진실된 것인가로 판단한다.
4. 풍자는 표현한 대상이나 의도를 축소시켜 표현하므로 이를 확대시켜 볼 때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5. 언어 유희는 다음을 확인해 본다.
   - 음절이 도치되는 말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핀다.
   - 부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제시된 말을 앞뒤의 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7. 표현된 시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선명한 인상, 효과적 전달, 강조, 새로운 관심 환기, 여운 등)를 생각해 본다.
8.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에는 대구 등 문맥에 의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본다.
9. 수사법의 종류를 익혀 주어진 시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10. 표현하고자 한 실체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비유법
11. 독자의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강조법
12. 단순하거나 무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절이나 시행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변화법
13. 사물을 어떤 형태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14. 사물을 주관적 변용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활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ᄂᆞ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ᄯᆞ릴 ᄲᆞᆫ이로다
비 ᄉᆡ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쏠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ᄒᆞᆯ고
낫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ᄒᆞᆯ셔이고
헴 업는 죵의 일은 뭇도 아니 ᄒᆞ려니와
도로혀 혜여ᄒᆞ니 마누라 타시로다
㉢너 주인 외다 ᄒᆞ기 죵의 죄 만컨마ᄂᆞᆫ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ᄒᆞ야 사뢰나이다
㉣새끼 ᄭᆞ기 마르시고 내 말ᄉᆞᆷ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ᄒᆞ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동량재 = 뛰어난 인재(은유)

주제 |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

표현상의 특징
1. 유추적 사고를 통해 동량재를 뛰어난 인재로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마누라 : 임금
종 : 하급 신하
어른 종 : 화자이자 고위 신하
가도 : 국가의 도리
→ 우회적 표현, 풍자성 강화

주제 |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

표현상의 특징

1 국가를 집으로 유추하여 표현함으로써 우회성과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2 연쇄와 반복을 통해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3.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국가를 집에 비유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시의 표현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죵들을 휘오시고 / 죵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죵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 연쇄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바루기 ② (가)의 '어와 동량재(棟梁材)ᄅᆞᆯ 뎌리 ᄒᆞ야 어이 ᄒᆞᆯ고'라는 구절에서 'ᄒᆞᆯ고'는 '할까'란 의미로 설의법이다. 이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살 ᄎᆞᆫ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라는 구절에 동일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량재→인재, 집→국가, 목수→인재 관리자(임금 등) 등은 은유법이다. 또 (나)에서는 '옥 ᄀᆞᆺ튼 얼굴리 편ᄒᆞ실 적 몇 날이리'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④ (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메 개까지 덩달아 짖어 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작품명과 작가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의좋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1.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켜 운율감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가난하여도 의좋게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그 나무 –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작품명과 작가
㉯그 나무, 김명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늦된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0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한 두 구절의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대비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는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키고 있지만 [B]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가 없다.

오답 바루기 ① [A]에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만 있지 대조는 없다. ③ [B]와 [A] 둘 다 공감각적 표현은 없다. ④ [A]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B]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⑤ [A]에서 '까 여', '다 여' 등은 사람 말의 종결 어미를 따온 것으로 의성어가 아니며 [B]에서도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산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A]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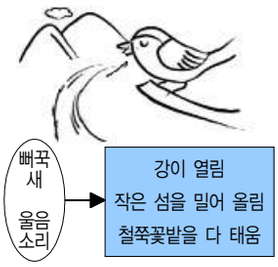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 길뜬 : 길이 덜 든.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작품명과 작가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뻐꾹새 울음소리의 실체와 그 영향

표현상의 특징

1. 중심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제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는 이 시는 뻐꾹새 울음소리가 끼친 영향을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면앙정가, 송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8행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

9행~끝행 면앙정의 정경

주제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표현상의 특징

1.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4음보를 반복해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하는 삶의 행복감과 자부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무등산 한 활개 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히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좋은 사정(沙汀)*
은 눈같이 펴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좋니느뇨 [B]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0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문항분석 두 시구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에서는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활유법이나 의인법을 구사하여 동적 미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B]에서는 물을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이란 구절 등을 통해 동적 미감을 시각적으로 직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펴졌거든'라는 구절에서는 모래밭을 직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②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라는 구절에서 보듯 강한 음보율을 드러내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둘 다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둘 다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둘 다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즐거운 편지

〈 I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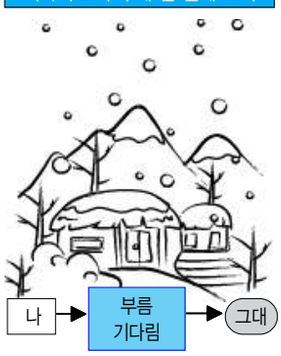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04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 I 〉과 유사한 것은?

①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 거 같으셨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면
아무 하늘도 안 보였으리

작품명과 작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의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1. 편지투의 어조로 내적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
2. 시적 화자 자신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평가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두 연으로 된 산문시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의 태도를 세월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사소하다고 자칭하는 표현에서 겸손한 우리말 어법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③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④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ㅅ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시적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은 ~ 사소한 일일 것이나'라든지,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일은 나로서는 뜨거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소함이란 표현은 본래 의도와는 상반된 의미이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②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임이 어느 날 찾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으시는 날 그때까지 못잊어 하고 있겠다는 것은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바루기 ①은 가정법을 통하여 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③은 종소리와 자신을 동실시(의인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는 자신·자신의 백골의 대립을 통하여 절대적·도덕적 이상의 추구를 염원하고 있으며 ⑤는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05 ㉠과 같은 표현 방법을 구사한 예가 아닌 것은?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③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오래지 않으리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⑤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핀을 꽂고 돌아들 간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인 모순 형용[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외로운'과 '황홀한'이 심사를 꾸미고 있는데, 외로우면 황홀할 수 없고 황홀하면 외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이므로 언어 자체가 모순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순 형용[역설]이다. ⑤에서는 애정의 핀이라는 구절에서 은유법만 사용되었다

오답 바루기 ①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황홀한 재앙'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외로운 눈부심'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⑤

작품명과 작가
유리창1, 정지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식을 잃은 애절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상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의 구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제시함(감정의 대위법)으로써 감정을 절제한 느낌을 자아낸다.
4. 호흡을 점점 길게 하는 점층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유리창에 비치는 죽은 자식의 영상을 산새와 별로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애끊는 마음을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 대립적 언어를 병치하여 오히려 차다고 느낄 만큼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사미인곡,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

주제 |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임에 대한 사랑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4. 4음보의 율격을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제시된 시가는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축원과 잠 못 이루는 사랑,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좇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임은 임금이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곤(乾坤)이 폐ᄉᆡᆨ(閉塞)ᄒᆞ야 ᄇᆡᆨ셜(白雪)이 ᄒᆞᆫ 비친 제 사ᄅᆞᆷ은ᄏ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샹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므ᄉᆞᆷ ᄒᆞ리.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茅簷)* 비쵠 ᄒᆡᄅᆞᆯ 옥누의 올리고져. 홍샹(紅裳)을 니믜ᄎᆞ고 취슈(翠袖)*ᄅᆞᆯ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듁(脩竹)*의 헴가림도 하도 할샤, 뎌ᄅᆞᆫ ᄒᆡ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겻ᄐᆡ 뎐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ᄭᆞᆷ의나 님을 보려 ᄐᆡᆨ 밧고 비겨시니, 앙금(鴦衾)도 ᄎᆞ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샐고.

하ᄅᆞ도 열두 째 ᄒᆞᆫ 둘도 설흔 날, 져근덧 ᄉᆡᆼ각 마라. 이 시ᄅᆞᆷ 닛쟈 ᄒᆞ니, ᄆᆞᆷ음의 ᄆᆡ쳐 이셔 골슈(骨髓)의 ᄭᆡ텨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ᄒᆞ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죡죡 안니다가, 향므든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ᄒᆞ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 쇼샹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옥누(玉樓) : 옥황 상제가 있는 곳
* 모쳠(茅簷) : 초가집 처마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슈듁(脩竹) : 긴 대나무
* 뎐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06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윗글에서 찾으면?

| 보 기 |

冬至(동지)ㅅᄃᆞᆯ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옥누(玉樓)
② 양츈(陽春)
③ 홍샹(紅裳)
④ 앙금(鴦衾)
⑤ 골슈(骨髓)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표현과 표현 기법상 유사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추상적 의미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베어내고 이불 아래 보관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양츈(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구체적 사물화시켜 부쳐 내고 임 계신 데 쐬고자 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옥누의 원관념은 궁궐이므로 은유법이다. ③은 '붉은 치마'이므로 사실적 표현이다. ④는 원앙 금침의 준말로 원앙은 금슬이 좋다는 관습적 상징이며 금침은 베개와 이부자리이므로 사실적 표현이어서 주관적 변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는 뼛속이라는 말이므로 시름이 뼛속에까지 끼쳐 있다는 표현이므로 과장법이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사라수 : 상록수의 일종
*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 : 부처님이 산다는 장엄한 세계

작품명과 작가
삼국유사, 일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연화장계관에 들어가기를 빎
↓
주제 | 죽은 자에 대한 축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한시의 한 특징인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살리면서 죽은 이가 부처의 세계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다.

07 위 시와 표현의 방법이 유사한 것은?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②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기에
아름다운 목숨을 싣고 갔느냐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제시된 시에는 '옛날과 지금', '석가모니불과 그 같은 자', '열반과 연화계관장', '들었는데와 들어가려 하네'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비튜기 ①에서는 '바람'이 고난, 어려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⑤에서는 당신이 '조국, 불법(佛法), 연인'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길,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마귀 = 감정 이입
기러기 = 선망의 대상

주제 | 나그네의 비애와 정한

표현상의 특징

1. 3음보를 구사하여 강한 율격미를 드러낸다.
2. 기러기에 말하는 형식으로 대화 존재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비애를 자연물에 기대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 길 –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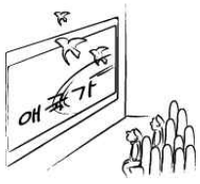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작품명과 작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반어 : 시대 상황 비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반영〉

주제 | 암울한 현실적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상의 특징

1. 현실을 죽음과 절망,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자유로운 새들과 시적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4.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등의 표현에서 반어법을 구사하여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면서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한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01 (가)와 (나)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새로운 세계에, (나)의 화자는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가)의 화자는 길을, (나)의 화자는 애국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③ (가)의 화자는 냉소적 어조로, (나)의 화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⑤ (가)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의 화자는 흰 새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소월에게서 '임'과의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으로, 그 이별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주어 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소월의 시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된다.

① 임과 같은 '내 집'을 떠나 유랑하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군.
② 임과 같은 '내 집'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군.
③ '산'은 '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해.
④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 되는군.
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란 표현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딱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목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란 표현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 암시되어 있다.
② 전체적으로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③ 2행의 '경청한다'란 표현은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④ 10행의 '이 세상 밖'은 또 다른 환멸의 공간을 의미한다.
⑤ 17행과 18행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현실 순응을 강요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1]

01	⑤	02	③	03	④		

01 ⑤

문항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기러기를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흰 새떼들을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나)에서는 '주저앉는다'란 구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가)는 집을 내세워 고향 즉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 밖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②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애국가를 들으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현실 도피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애상적 어조, (나)는 냉소적인 어조를 드러낸다. ④ (나), (나) 둘 다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02 ③

문항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는 갈 곳 모르는 심정의 표현이지 산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바루기 ① 시적 화자는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하며 유랑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 적절하다. ②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보듯 정주곽산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④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다. ⑤ 차와 배는 갈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여 유독 시적 화자만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잘 드러낸다.

03 ④

문항분석 시구의 표현 기법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 세상 밖'은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이 싫어 떠나고자 하는 지향점이므로 이상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오답 바루기 ① 제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세상을 새들도 싫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암울한 시대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등의 구절에 된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청한다'는 듣기 싫어도 마지못해 듣는다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이다. 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해야 하는 부정적인 세상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억지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가) 길, 김소월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나그네 집'이란 시어에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론가 여행이나 혹은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가 '울며 새었다'면 시적 화자도 밤새워 들었을 게다. 잠 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터니. 그렇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무슨 근심에선가 밤새 슬퍼 잠 못 이루었다는 얘기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란 표현에 있다. 고향을 떠나온 상황이다. '차 가고 배 가는' 고향을 두고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옛가요에 나오는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신세'에 처한 자신의 딱한 상황 때문이리라.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일까 아니면 사회적 사정일까? 약간의 배경 지식만 동원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하의 지독한 수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공중의 저 기러기를 불러대는 것은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한 대화 상대의 부재를 나타내 고독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목표는 오락이다.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란 말을 듣는다면 기절할 노릇이리라. 반어의 섬뜩한 묘미를 활용해 강요된 의식에 대한 비판의 장을 열고 있다. '삼천리 화려 강산'도 당시의 현실으로 봐서는 반어적이며 대유적 표현이다. 화면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절망 속에서는 새들의 비상도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로 애국가는 끝이 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것도 '주저 앉는다'. 절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을 위한 서시** –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나 **폭포** – 이형기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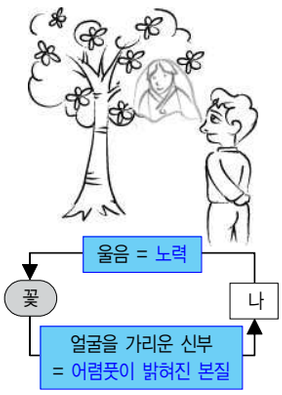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그 위에 벼랑은 다시 솟는다.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을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랑은 자멸(自滅)이다.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작품명과 작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존재의 본질 인식에의 염원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2.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소망을 읊은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폭포, 이형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폭포를 통하여 느끼는 일상적 삶의 존재론적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

표현상의 특징

1. 폭포를 의인화하여 그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폭포의 이미지를 관념화하여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한계와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 (나)의 화자는 직접 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상상하여 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소망을 이룬 기쁨을, (나)의 화자는 소망을 못 이룬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나)의 화자는 파괴된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추억 속의 시적 대상에 대하여, (나)의 화자는 현재 바라보고 있은 시적 대상에 대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나)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02 (가)에서 발상을 얻어 다음 〈보기〉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할 때,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오렌지 –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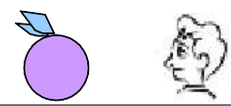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①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② 대상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③ 대상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 대상에 의지해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오렌지, 신동집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사물로서의 오렌지와 관계 설정
접근 가능한 존재로서의 오렌지
파괴할 수 없는 본질로서의 오렌지
오렌지의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
오렌지의 본질의 추구 가능성

주제 |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추구

표현상의 특징

1.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2. '포들한, 찹잘한' 등의 시적 자유에 의한 표현으로 중심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오렌지라는 소재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져 그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②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바라춤, 신석초

③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 김수영

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 네거리의 순이, 임화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2]

01 ①	02 ④	03 ④		

01 ①

문항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꽃을 '너'로 의인화시키고 있고 (나)는 폭포를 '나'로 하여 직접 시상을 펼치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라는 구절로 볼 때 꽃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알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망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③ (가)에서 울음은 금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노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파악해야 하지 연민의 울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나)는 파괴된 자연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는 시방이라는 시어로 볼 때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둘 다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02 ④

문항분석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태도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②, ⑤ 두 시 모두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③ 주관적 묘사는 부분적으로 드러나나 객관적 묘사는 없다.

03 ④

문항분석 제시된 시의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으로 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라는 표현은 자멸이 자랑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이라고 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상이 폭포임을 고려하면 떨어지는 것이 존재 가치가 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이다. ④의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역설이다.

오답 바루기 ①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⑤ 둘 다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라는 말에 우린 깜작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너 또한 대명사여서 궁금증은 증폭된다.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가지'와 '피었다 진다'란 말에서 우리는 너를 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손이 닿으면'은 꽃을 꺾는 행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없다'란 말은 인식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도 곧 무지의 의미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리라. 그래서 '추억의 한 접시 불'도 노력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돌개바람과 '금(金)'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은 가치 있는 것의 의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꽃을 얼굴을 가리운 신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윤곽을 파악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베일을 벗겨야 하는 과제는 남은 터다.

(나) 폭포, 이형기

이 시에서 '나'는 산이 아닌가란 위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은 제목을 무시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하며 고함지를 수 있는 화자란 바로 폭포이다. 산은 등장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주 속에 부르르 떨고 마침내 단말마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물줄기에겐 벼랑은 벼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수잠자리의 추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폭포의 비유로 풀 수밖에 없는 의미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2 억 년 묵은 이 칼자욱과 석탄기의 종말이 짝을 이루어 폭포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객관성을 얻는다.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란 구절에서 우린 역설을 읽어 낼 수 있다. 자멸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떨어지자고 하는 것은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란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과도 뜻이 통한다. 복안은 잠자리의 눈처럼 여러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도 장수잠자리란 폭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곧 복안은 여러 개의 물방울이며, 그 무수한 수정체이며,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등판을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는 물줄기 즉 좁은 의미의 폭포를 빛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넓은 의미의 폭포는 벼랑과 물줄기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의 폭포는 물줄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옳음을 입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승무(僧舞) – 조지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작품명과 작가
㉮승무, 조지훈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3연 춤추기 전의 모습 – 기
4~8연 배경과 춤추는 모습 – 서
9연 춤의 종료 – 결

주제 |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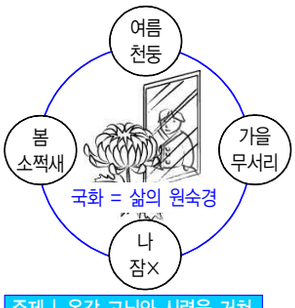
표현상의 특징

1. '고깔, 머리, 볼', '소매, 외씨보선', '눈동자, 뺨, 손' 등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는 것을 반복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는 율동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갈등은 암시적으로 드러낸 후 '별빛' 등의 이미지를 통해 내적 정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불교적인 시어와 '오/우'가 들어가는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우아한 멋을 살리고 있다.
4.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안정감, 통일감, 균형미를 구현하고 있다.
5. 유음 'ㄹ'을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해제 이 시는 인간적 번뇌를 별빛처럼 맑게 승화시켜 선적(禪的)인 정취와 분위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경지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를 반복하여 친근한 율격미를 형성하고 있다.
2.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형성되기까지의 비통과 불안과 방황과 온갖 시련을 국화가 피어나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사람에 대한, (나)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시적 대상이, (나)는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사람을 통해,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삶을 표출하고 있다.
④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나)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나타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나)는 밝은 공간에서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02 (가) 시를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면서 문학 작품을 고도의 형상적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인 체계로 본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하며, 언어 표현의 방식과 작품의 내적인 짜임새를 중시한다.

① 춤의 동작과 대상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어.
② 지상적 이미지와 천상적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들어.
③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어휘들이 있어.
④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⑤ 갈등의 종교적 해결을 나타낸 것은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03 (나)에 대한 구체적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어구를 반복해 율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② '국화꽃'과 세 계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거울'은 객관적 사실을 투영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④ '잠'이란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소쩍새 소리나 천둥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4 ⓐ와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① 오호, 흰 눈이 내리느니, 보오얀 흰 눈이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②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드메 꽃같이 숨었느냐. – 그리움, 유치환

③ 아 내가 모르는 것을, / 내가 모르는 그 절망(絕望)은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는 심정이
왜 이처럼 가볍고 서글픈가. – 들길, 이형기

④ 매끄러운 무우를 혀끝으로 더듬으며 /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으며
마을을 가리던 키 큰 그림자 / 세상을 덮어버릴 때까지
나는 새파랗게 웃고 있다. – 일식, 이경교

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망한 / 이 황무한 전장에서
이름도 모를 꽃 한 송이 / 뉘의 위촉으로 피어났기에
상냥함을 발돋움하여 하늘과 맞섬이뇨. – 꽃, 박양균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3]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1 ③

문항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의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는 구절에 삶의 고뇌를 이겨냈다는 시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오답 바루기 ① (가)에 승 즉 스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다. ② (나)는 자연물인 국화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화자의 현실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④ (가), (나) 모두 비판적 태도를 표현한 내용이 없다. ⑤ (가)는 사람을 (나)는 꽃을 노래하고 있다.

02 ⑤

문항분석 제시된 관점으로 비평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는 작품 감상의 여러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작품의 감상에서 작가와 현실, 독자의 측면보다는 작품 자체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시에서 '복사꽃 고운 뺨에 ~ 별빛이다'에서 갈등의 종교적 승화라는 주제 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작가를 중시하고, 작품의 외재적 관점인 '표현적론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오답 바루기 ① 시의 구성 방식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② 제시된 시어 '세사와 별빛'의 대응 관계를 밝히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③ '이 밤사 귀또리, 하이얀, 나빌레라' 등등의 시적 허용과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④ 직접적으로 시어와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03 ③

문항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라는 표현으로 보아 거울은 '회상과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오답 바루기 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와 '울었나 보다'가 반복되고 있다. ②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 천둥, 무서리 등이 연관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의미한다. ④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

04 ③

문항분석 제시된 구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번뇌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별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다. 그러나 번뇌 속에서 구원의 빛이 찾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따라서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③에서 '가볍고 서글픈가'라는 표현도 역설이다.

오답 바루기 ① 영탄법과 반복법. ② 직유법, 영탄법, 의인법. ④ 특정 표현 기법이 없다. ⑤ 의인법.

(가) 승무, 조지훈

고깔의 모양을 한 마리 나비로 비유해 본 시적 화자의 시선은 고깔 속의 머리와 두 볼의 순으로 하강한다.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다시 시선은 배경으로 옮아가며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란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펼치는 소매의 끝자락이 하늘에 닿을 듯한 모습과 정중동의 발동작을 연상해 보자.

까만 눈동자에 까만 하늘 그리고 빛나는 별, 복사꽃 고운 뺨에서는 젊은 여승의 번뇌가 묻어날 듯도 한데 '번뇌는 별빛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후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첫연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율격과 안정감을 조율해 시를 끝맺고 있다.

(나) 국화 옆에서, 서정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런 의문으로 시를 해석하면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진술이 참이 되는 것은 시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울었다는 데 어떻게 운 것일까? 이것은 좋은 의문이다. 앞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을 지시어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묘미는 이런 점에서도 살아난다. 다시 '그렇게'는 어떻게?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독자가 들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천둥이 울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니 계절과 자연과 인간이 다 인연을 맺고 발생한다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이 성립된다. 그러한 연기설은 화자의 인식에 의한 것이므로 시적 참이 되는 셈이다.

제3연은 다른 연과 달리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며 대상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연이다. 누님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으로 인생의 격정을 다 겪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숙한 모습의 여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 생활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2 설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대립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며 사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어부가(漁夫歌) — 이현보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夫)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뛰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ᄂᆞᆯ 가는 줄ᄅᆞᆯ 안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ᄀᆞ렛ᄂᆞᆫ고
㉡강호애 월백(月白)ᄒᆞ거든 더옥 무심(無心)하얘라.

청하(靑荷)애 바블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께여
노적화총(蘆荻花叢)애 ᄇᆡ ᄆᆡ야 두고
㉢일반 청의미(淸意味)를 어늬 부니 아라실고.

산두(山頭)에 한운(閒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장안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장된 표현으로, 현실적 절망을 확대시키고 있다.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있다.
③ 풍자의 기법으로, 잘못된 사회상을 꼬집어 공격하고 있다.
④ 대조의 기법으로, 소망하는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⑤ 구체적 묘사를 통해, 지향하는 고향의 모습을 뚜렷이 그려내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일엽편주(一葉扁舟)'라는 시어를 통해 어부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은 달이 밝다는 뜻의 시어 '월백月白)'을 통해 화자가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맑고 깨끗한 삶이란 의미의 시어 '청의미(淸意味)'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은 백색 이미지의 시어 '백구(白驅)'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삶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⑤ ㉤은 북쪽에 있는 대궐이라는 뜻의 시어 '북궐(北闕)'을 통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0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날마다 강가에서 고기 낚는데
낚시 무는 놈은 모두 잔챙이.
누가 알까,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배보다 더 큰 고기 있음을. – 김류

② 호미 메고 꽃 속에 들어가
김을 매고 저물녘에 돌아오네.
맑은 물이 발 씻기에 참 좋으니
샘이 숲속 돌틈에서 솟아나오네. – 강희맹

③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 테고
파릇파릇 풀 싹도 돋아날 거야. – 정몽주

④ 동남으로 저 멀리 푸른 바다 바라보니
아침 안개 사라지고 붉은 해 일렁이네.
위아래가 어슴푸레 같은 색이 되었으니
모르겠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가. – 이승소

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4]

01 ④	02 ④	03 ⑤		

01 ④

문항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ᄀᆞ렛ᄂᆞᆫ고'라는 구절에서 자연과 속세를 대조시켜 자연에 귀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① '일생(一生)애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라는 구절에 과장법을 구사하였으나 현실적 절망을 표현한 구절은 없다. ②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잘못된 사회상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⑤ 고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④

문항분석 시구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백구(白驅)'는 흰 갈매기란 뜻인데 한운 즉 구름과 동격으로 자연을 나타내면서 무심코 다정한 대상이 되어 순결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바루기 ① '일엽편주(一葉扁舟)'는 조그만 조각배란 뜻으로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어부의 일상생활을 표현한다. ② '월백月白)'은 '무심(無心)하얘라'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③ '청의미(淸意味)'는 '어늬 부니 아라실고'라는 구절 즉 '그 누가 알리'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자부심을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⑤ '북궐(北闕)'은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라는 구절 즉 '고깃배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03 ⑤

문항분석 제시된 시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는 '십장홍진(十丈紅塵)' 즉 속세와 격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⑤에서 '늘 시비하는 소리'라는 말도 속세를 의미하며 흐르는 물은 속세의 소리를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오답 바루기 ① 큰 세상을 비유한다. ② 자연의 대유이다. ③ 봄 정경을 의미한다. ④ 하늘과 같은 바다 빛깔을 의미한다.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전문 현대어역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다만 '나의 걱정이 아닌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라는 구절을 다소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아 나랏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문 현대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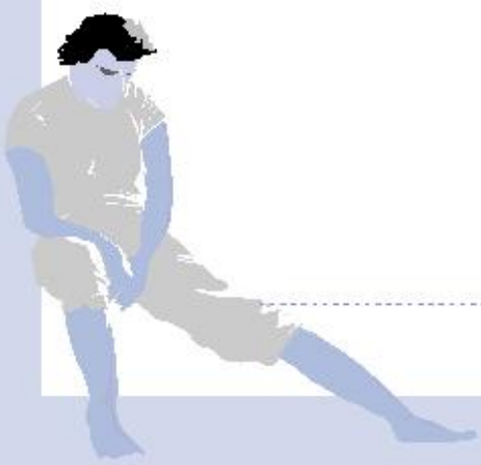
이 중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사를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랴. —자연과 합일된 경지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는 얼마나 가려 있는가.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무욕의 강촌 생활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이 우거진 떨기에 배를 매어두니,
이런 일상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강호에서의 맑은 재미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을 새가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이 아닌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
—세속을 초월한 강촌 생활



작품명과 작가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행 비판 대상 인물의 제시

2~5행 개똥이의 처신 개관

6~끝 행 개똥이의 비도덕적 행위 묘사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표현상의 특징

1. 대구와 4음보로 강한 율격을 드러낸다.
2. 시적 대상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3. 인물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해학미를 드러낸다.

해제 이 작품은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가차 없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부가(愚夫歌) – 작가 미상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게.
남촌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제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 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놀이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 치가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 조방꾸니* 안방에는 노구할미*
명조상을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까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빚이 태산이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 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도망하여* 계집 자식 재물 수탐
일가 친척 구박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짊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 상하탱석* 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이요 윤의*는 내 몰라라.

* 광언 : 미친소리.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조방꾸니 : 바람피우는 것을 돕는 사람 .
* 명조상 : 이름난 조상.
* 염량 : 더위와 추위.
* 승기자 : 자기보다 나은 사람.
* 반복 소인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
* 경계판 : 관의 바탕면.
* 활량 : 무위도식하는 사람.
* 시체 : 철에 따라.
* 노구할미 : 뚜쟁이 노릇을 하는 노파.
* 떠세하고 : 젠 체하고 억지를 쓰고.
* 진봉 : 권문세가에 뇌물을 갖다 바침.
* 염지하니 : 싫어하니.
* 도망하여 : 완전히 잊고.
* 용전여수 : 돈을 물처럼 흔하게 씀.

* 상하탱석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변통.
* 채객 : 빚쟁이.
* 윤의 : 윤리와 의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으로, 부정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③ 풍자의 기법으로, 대상의 행위를 비꼬아 공격하고 있다.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⑤ 대화체를 활용하여,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관용구를 활용하여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드러낸다.
② ㉡ : 대구를 활용하여 유사한 행동을 드러낸다.
③ ㉢ : 과장을 활용하여 부지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④ ㉣ : 대조를 활용하여 도리에 어긋남을 드러낸다.
⑤ ㉤ : 대조를 활용하여 예의가 없음을 드러낸다.

03 시상 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① 수백냥이 헛것이다.
② 울타리가 땔나무다.
③ 원망하는 소리로다.
④ 사람마다 도적이라.
⑤ 입구멍이 제일이라.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5]

01 ③	02 ③	03 ①		

01 ③

문항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대부분의 구절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짊어지고 /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라는 구절에서 풍자의 기법이 잘 드러나며 이는 대상을 비꼬아 공격하는 것이다.

오답 바루기 ① 중의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② 반어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④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대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③

문항분석 시구의 의미와 표현 기법과 그 구실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빚이 태산이다.'라는 구절에서 과장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빚이 많음을 나타낸다.

오답 바루기 ① 눈이 높고 손이 크다는 관용구이고 '가량없이 주제넘어'라는 구절은 분수가 없다란 뜻이다. ② '이리 모여 노름놀이'와 '저리 모여 투전질'은 유사한 의미이다. ④ 일가를 먼저 아껴야 하는 도리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⑤ 내 인사가 먼저라는 예절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03 ①

문항분석 생략된 시구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앞 구절은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이어진 구절은 '박할 때는 후하여서'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대조적 대구가 되므로 ㉡에도 대조적 대구의 형태가 되는 ①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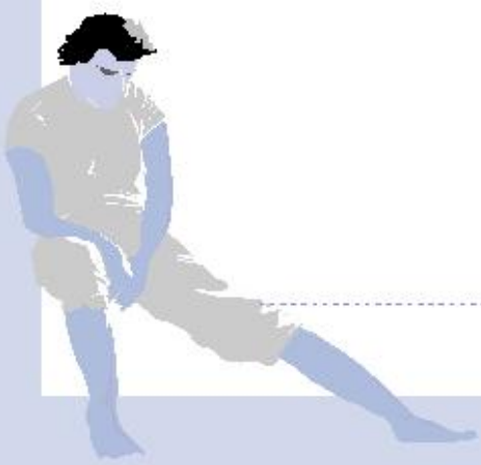
오답 바루기 ②, ③, ④, ⑤ 모두 대조적 대구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로 시작된 이 가사는 개똥이의 행적을 가차 없이 서술해 나간다. '저 인간'이란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간 같지 않은 행적을 다소 과장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대어역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문 현대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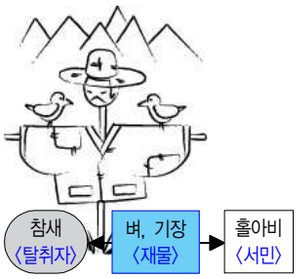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여 소견머리가 없는데다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없이 주제 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저녁으로 반찬 투정을 하며, 항상 놀고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게트림을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저리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오입쟁이 친구로다. 사랑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쟁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도를 찾아 기웃기웃하며, 세도를 따라 뇌물을 바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를 하여 남의 빚이 태산처럼 많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변통하기에 바쁘고, 오는 손님은 모두 빚쟁이이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체한다.



작품명과 작가

㉮사리화, 이제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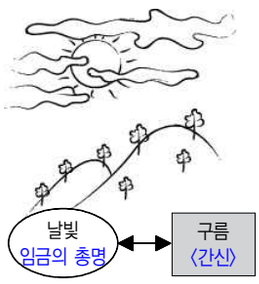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에서 '참새'는 평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하고, '늙은 홀아비'는 수탈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농민을 상징한다.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지 못하고 참새에 비유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서글픈 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이존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간신의 횡포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초장의 '구름'은 간신 신돈을 가리키며, 그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구는 태도를 중장에서 형상화해 놓고 있다. 마지막 종장의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신돈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사리화 — 이제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黃雀何方來去飛)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一年農事不曾知)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맸는데, (鰥翁獨自耕耘了)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耗盡田中禾黍爲)

㉯ 고시조 — 이존오

㉠구룸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이셔 임의(任意)로 단니면서
구타야 광명(光明)한 날빗츨 따라가며 덥나니.

㉰ 고시조 — 신흠

냇가의 해오랍아* 무스 일* 서 있는다?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슴하려는다?*
아마도 한 물에 있거니 니저신들 어떠리.

* 해오랍아 : 해오라기(백로)야.
* 무스 일 : 무슨 일로.
* 여어 : 엿어, 엿보아서, 노려보아.
* 무슴하려는다? : 무엇하려느냐?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②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⑤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02 (가)와 유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①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武斷)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의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 양반전
②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춘초(春草)는 연년록(年年綠)하되 왕손(王孫)은 귀불귀(歸不歸)라, 날로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제 만세 무량하옵소서, 다시 보긴 망연이라. — 춘향전

③ 가난이야 가난이야 만고에 있는 가난. 아무리 헤아려도 내 웃수의 가난은 다시 없네. 아주 좁고 찢어지게 가난하여 도정절의 가난하기도 내 집에 비하면 대궐이요, 삼순구식 십년일관이란 정관문의 가난하기도 내게 대면 부자로다. – 흥부전

④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 호질

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 허생전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다음 밑줄 친 단어가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은?

①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
새파란 나리에
耆郎(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 찬기파랑가, 충담사

② 바름도 쉬여 넘ᄂᆞᆫ 고ᄀᆡ 구름이라도 쉬여 넘ᄂᆞᆫ 고ᄀᆡ,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라ᄆᆡ라도 다 쉬여 넘ᄂᆞᆫ 고봉(高峰) 장성령 고ᄀᆡ.
그 넘어 님이 왓다 ᄒᆞ면, 나는 아니 ᄒᆞᆫ 번도 쉬여 넘으리라.
– 사설 시조, 작가 미상

③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ᄂᆡ. 煙霞日輝(연하 일휘)ᄂᆞᆫ 錦繡(금수)ᄅᆞᆯ 재폇ᄂᆞᆫ ᄃᆞᆺ.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ᄒᆞᆯ샤. – 상춘곡, 정극인

④ 가온대 구ᄇᆡᄂᆞᆫ 굼긔 든 늘근 뇡이 션즘을 ᄀᆞᆺ ᄭᆡ야 머리ᄅᆞᆯ 언쳐시니, 너ᄅᆞ바회 위ᄒᆡ 松竹(송죽)을 헤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ᄐᆞᆫ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ᄂᆞ래 버렷ᄂᆞᆫ ᄃᆞᆺ. – 면앙정가, 송순

⑤ 日일出출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祥샹雲운이 집픠ᄂᆞᆫ 동, 六뉵龍뇡이 바퇴ᄂᆞᆫ 동, 바다ᄒᆡ 써날 제ᄂᆞᆫ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텬中듕의 티ᄯᆞ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 관동별곡, 정철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신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약육강식의 세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하여 뛰어난 작품성을 띠고 있다. 초장의 '해오랍'은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장의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장의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6]

01	①	02	①	03	⑤		

01 ①

문항분석 여러 시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에서는 가혹한 수탈을 풍자하고 있고 (나)에서는 광명을 가리는 구름을 풍자하고 있다. (다)에서도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적절하다.

오답 바루기 ②, ⑤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④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02 ①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드러난 상황과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참새를 관리로, 늙은 홀아비를 평민으로 상징하여 양반의 가혹한 수탈을 풍자하고 있다. ①도 양반의 착취와 횡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바루기 ② 고향을 떠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③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선비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⑤ 양반의 비현실성을 풍자하고 있다.

03 ⑤

문항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름의 원형적관습적 상징 의미는 '떠돎, 허망' 등인데 (나)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날빛 곧 태양을 구태여 따라가며 덮는 존재 즉, 광명을 가려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물론 태양을 임금으로 구름을 태양과 같은 임금을 가리는 간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⑤의 녈구름도 태양을 가리게 될까봐 시적 화자는 염려하고 있어 그 상징적 의미가 같다.

오답 바루기 ①, ②, ③ 높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④ 정자와 그 주변의 형상을 나타내는 보조 관념으로 사용되었다.

(가) 사리화, 이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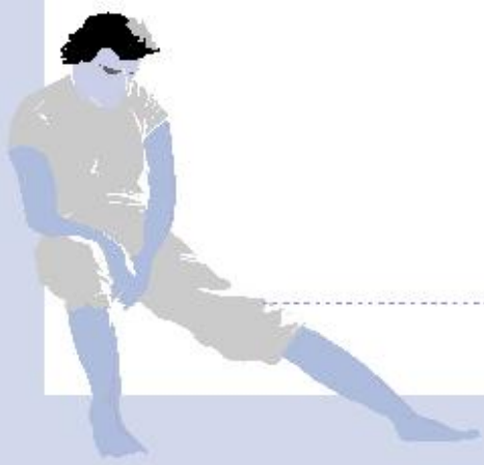
세상사를 자연적인 일에 빗대어 풍자하는 시다. 참새가 탐관오리를 나타낸다면 늙은 홀아비는 가난한 서민, 벼와 기장은 재물을 상징한다. 한 숨이 묻어나는 시다.

(나) 고시조, 이존오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냇가의 해오라기'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적으로 꼬집고 있다. '해오랍'은 물고기를 탐내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고시조, 신흠

관습적 상징을 이용하여 시적 의미를 일반화하여 이해해 보자. '해'가 임금을 의미한다면 '구름'은 임금의 총명이나 광명을 가리는 존재가 되므로 '간신'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임의로 다닌다란 말은 뜻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니 간신이 제멋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간신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물론 배경 지식을 보아 간신을 신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작품명과 작가
㉮못 잊어,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잊히오리다 ↔ 반어 ↔ 못 잊어

주제 |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2.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3.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한다.

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3음보의 율격을 유지하면서 마치 임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적 시상 전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즐거히 살아가리 구름 ↔ 반어 ↔ 타향에서의 고달픈 삶 나×
↔ 고향으로 감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향의 고통

표현상의 특징

1.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2.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과장하여 심적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3. 시적 화자와 대조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지척에 있는 고향에 못 가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과장법을 활용하여 잘 표현하고 있으며 타향살이의 고통을 반어를 이용해 형상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못 잊어 —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

㉯ 오늘도 고향은 — 김기림

〈Ⅰ〉 오늘도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
뜻하지 않은 위도(緯度)가 은하로구나

〈Ⅱ〉 사랑스런 살붙이들
쟁쟁한 목소리 아물거리는 얼골

〈Ⅲ〉 도시 허위잡을 수 없이
구름만 북으로 밀려가는구나

〈Ⅳ〉 여러 십년 하루같이 모든 것을 고대턴 것
눈앞에 어른거리면서도 종내 나서지 않아
동무와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며

〈Ⅴ〉 목이 말라 가슴이 타 냉수를 켜며
이 달도 손때 밴 자전(字典)을 팔아 즐거히 살아가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과 유사한 연을 (나)에서 찾으면?

① Ⅰ ② Ⅱ ③ Ⅲ ④ Ⅳ ⑤ 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무 –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작품명과 작가
농무, 신경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술 : 원통하다
↑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 ↑ 반어× 역설○
춤 : 신명이 난다

주제 |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실 참여적인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2. 역설적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서사적 구성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해제 이 시는 서사적 행위를 하는 화자가 사회적 현실을 체험하면서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 역설적 표현에 담아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2 위 시의 ㉠과 표현 기법이 같은 것은?

① 겨자씨 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
복숭아 가지나 아가위 가지에 앉은
배부른 흰 새 모양으로
잠깐 앉았다 떨어지면 돼. – 김수영, 장시 일

②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 김남조, 생명

③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백석, 여승

④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 김소월, 접동새

⑤ 지상의 시는
지혜의 허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지혜의 비극을 구한다.
분명히 태초의 행위가 있다. – 임화, 지상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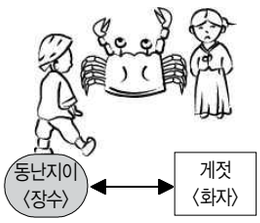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작가 미상

고시조 – 작가 미상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져 쟝스야, 네 황후 긔 무서시라 웨ᄂᆞᆫ다, 사쟈.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
쟝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ᄒᆞ렴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난해한 말의 사용에 대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2.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대화체로 되어 있으며 게를 해학적으로 묘사하면서 한자어를 쓰는 데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위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의도 표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③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래 의도와 상반되게 말하고 있다.
④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순된 논리 속에 냉철한 진리를 담고 있다.
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망과 좌절을 직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 –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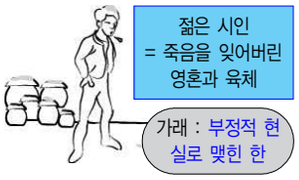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작품명과 작가
눈, 김수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눈
가래가 잘 드러나게 하는 존재

주제 | 정의롭고 순수한 삶에의 소망과 의지

표현상의 특징

1. 점층적 반복으로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2. 상징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3. 단호하고 강인한 어조를 구사하여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해제 이 시는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의 주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4 위 시의 첫째 연에서 사용된 표현 기교가 구사된 것은?

① 일체의 수속(手續)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드는
우울을 견디다 못해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 조병화, 주점

②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③ 밤은, / 푸른 안개에 싸인 호수
나는, / 잠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다. – 김동명,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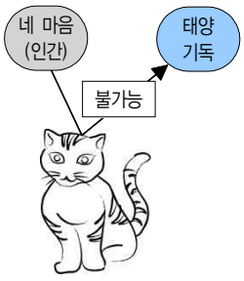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밭이 한참갈이
괭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⑤ 고개 숙여 성 옆을 더듬어 가면
시정(市井)의 노랫소리도 오히려 태고 같고
문득 치켜든 머리 위에선
낮달도 파르르 떨며 흐른다. – 서정주, 광화문

작품명과 작가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인간 영혼 구제의 불가능성

표현상의 특징

1.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화체로 구성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자아낸다.
2.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벽모(碧毛)의 묘(猫) – 황석우

어느 날 내 영혼의
낮잠터 되는
사막의 위 숲 그늘로서
파란 털의
고양이가 내 고적한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끓는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
만일에 네 마음이
우리들의 세계의
태양이 되기만 하면,
기독(基督)이 되기만 하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5 위 시의 밑줄 친 부분은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①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 변영로, 논개

② 옛날, 우리 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 김소월, 접동새

③ 가자 가자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7]

01 ⑤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1 ⑤

문항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찾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서 마치 잊을 수 있는 듯이 표현하다가 맨 끝연에서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라는 반문으로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 ㉠은 표현 의도와 상반된 반어적 표현이다. (나)의 Ⅴ도 손때 밴 자전(字典) 즉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팔아 즐거이 살아간다는 말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바루기 Ⅰ에서는 '위도가 은하'라고 하였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고, Ⅱ에서는 의성법, Ⅲ에서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으며, Ⅳ에서는 '여러 십년을 하루같이'라고 하였으므로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02 ⑤

문항분석 제시된 구절의 표현 기법인 역설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표현법을 구사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그런 한스러운 신명이 있을 수 있어 역설적 표현이다. ⑤에서는 시가 지혜의 허위를 깨뜨려 폭로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비극을 구한다고 하였는데, 즉 지혜에 대해 나쁜 존재이면서 동시에 좋은 존재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혜만을 숭상하는, 낭만이 없는 사회에서는 참이 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역설적 표현이 된다.

오답 바루기 ①에서는 반어가 사용되었고, ②에서는 대구와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직유가 사용되었고, ④에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3 ②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풍자 기법의 특징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장수가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슥ᄒᆞᄂᆞᆫ 동난지이 사오.'라고 하며 자신의 물건을 한자어로 어렵게 소개하자 시적 화자는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ᄒᆞ렴은'라며 쉬운 우리말로 하라고 가볍게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풍자시이며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오답 바루기 ①은 일반적으로 언어 유희에 해당하며, ③은 반어에 해당한다. ④는 역설에 해당하며, ⑤의 직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정서 표출 방식의 한 갈래에 해당한다.

04 ②

문항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눈은 살아 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제 2행, 제 3행으로 갈수록 다른 구절이 늘어나면서 의미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반복법과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②도 '이름이여'란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행을 더하여 갈수록 그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답이 된다.

오답 바루기 ①에서는 '나를 마신다'에서 '나'가 술이므로 의인법 혹은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④에서는 호미와 괭이를 농기구의 대유법으로 볼 수 있다. ⑤에서는 직유법과 의태법이 사용되었다.

05 ①

문항분석 시적 대상을 비유하는 구체적 방법이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뇌와 운명, 애(愛)는 모두 추상적인 것인데 애가 오뇌와 운명을 삶아 낼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추상적 의미가 모두 구체적 사물로 비유되어 있다. ①에서도 마음이 색채를 띠고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추상적 의미가 구체적 사물로 비유되었다.

오답 바루기 ②는 아무런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③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에서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으며, ⑤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1. (가)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상을 응축시키고 이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임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란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지독한 그리움의 표현에 해당한다. 3음보의 율격은 민요조의 율격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나)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라 하였으니 합은 천 오백리다. 그것을 위도로 받아 다시 은하로 과장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심적 거리에 반해 그리운 대상들은 더 없이 많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구름은 가고 있으니 시적 화자는 더욱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 고통을 십년을 하루같이 고대턴 것이라는 말로 표출하고 끝내는 손 때 밴 자전을 팔아 즐거히 살아갈 것이라는 반어로 절망감을 털어 놓는다.

2.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리고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는 막이 내린다.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때 때론 비애에 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며 소주를 마시는 이유를 제시한다.

장거리로 나서도 조무래기들만 따라 붙어 누구는 임꺽정처럼 울부짖고 누구는 서림이처럼 해해댄다.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는 비애의 근원을 비료도 안 나오는 농사로 밝히고 있다. 애쓴 보람이 없을 때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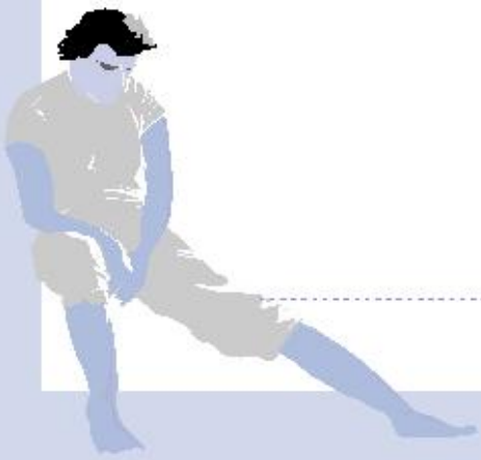
도살장, 죽음의 공간 앞에 농무를 출 때 슬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나는 것은 무엇일까? 춤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비애의 상황에서도 춤은 정말 신명이 나게 만든다. 살풀이를 하는 무당의 춤에서 우리가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리라. 그래서 반어가 아닌 역설이 되면서 우릴 더 슬프게 한다. 한 편의 동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서사적 구성 때문이다.

3. 고시조, 작가 미상

동난지이를 사라고 외친다. 궁금한 어느 주부는 장사꾼에게 묻는다. 네 물건이 무엇이냐? 대답이 요란스럽다. 밖에는 뼈, 안에는 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논리가 튀어 나온다. 두 눈이 하늘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뒤로도 잘 가는, 작은 다리가 여덟 개, 큰 다리가 두 개이면서 맑은 장이 아사삭 깨물 때 터지는 동난지이를 사란다.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게 젓이라 하라는 말이 웃음 속에서도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풍자의 묘미다.

4.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더러운 가래는 세상사와 관련된 것이다. 젊은 시인이 지닌 세상에 대한 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시는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